

2015년 3월 16일 새벽말씀(편집본)/2006.3.16

오늘 새벽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오늘 새벽은  
온 인류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난 날이 있지요? 내가 난 날입니다. 여러분이 늘  
말하는 선생이 난 날입니다. 어디서? 내 고향 월명동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환경, 배경도 많이 봅니다.

<월명동, 석막리 마을 사진1>

이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석막리 마을입니다. 이렇게 큼니다. 여기에 그 전  
에는 80호였습니다.

이 위는 월명동으로 네 집이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한 10명 쯤  
12명쯤 났습니다.

큰 마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내가 알기로는 목사 한 명 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80호, 85집이었습니다. 그러면 20배도 더 큰 마을이고, 월명동은 20배도  
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10명 이상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만 해도 목사님들이 6명이 됩니다. 한 집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까 나는 목사님이 많은 집에서 났습니다. 마을도 목사님이 많은 마을에서 났습니다.

윗집에서 두 명, 아랫집에서 두 명, 그 옆집에서 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 같  
습니다. 12명이 났습니다.

20배도 더 작은 곳인데, 20배 이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월명동이 환히 보이  
지요?

<월명동, 석막리 사진2>

여기 중간 마을에서는 목사들이 안 났습니다. 이 중간 마을에도 집들이 있는데, 여기  
는 목사님들이 안 났습니다.

석막리는 집이 많습니다. 이 마을은 85집입니다. 지금은 집 숫자가 줄었습니다. 석막  
교회가 여기 보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 있고, 산이 병풍같이 둘러있습니다.

‘왜 그런 곳에서 났는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첫째는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뜻이!

여기 위쪽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고씨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뜯었습니다.

<생가 그림>

여기 윗집이 보이지요? 우리 옆에 집이 있잖아요. 이 집에서 목사님 두 명 났습니다.  
박영래 목사, 박주홍 목사입니다. 그리고 박주홍 목사 아들이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집  
에서 3명 났고 우리 집에서 6명이니 9명입니다. 그 밑 집에서 2명 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하나가 목사 되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뜻을 펴시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석막교회 야외예배 기념촬영 사진>

목사님들 된 사람들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거의 다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몇 명은 큰 마을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큰 형인 정인석 목사, 고승일 목사, 정광석 목사, 건너뛰고 박주홍 목사,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박영래 목사입니다. 이 분만 큰 마을에서 하나 난 박시훈 목사입니다. 사진이 하도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영자 권사, 여기 앉아 있는 용석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범석 목사는 어디 갔는가 안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윗집에 있는 박옥단으로 영자 친구입니다. 여기는 순희 라고 고목사님 동생, 여기는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전부 월명동 사람입니다. 큰 교회 전체가 월명동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진 찍어 놓으라고 하셔서 찍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시킨 것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찍자고 막 그래서 찍었습니다. 증거를 세워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있는 꼬마 이 애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반대기만한 애가 박주홍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가 7살 때부터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하도 노래를 많이 불러서 목이 쉬어서 음성이 제대로 안 난다고 목사 시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전부 다 11명인가, 12명이 목사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달밭골 청년들입니다. 세 명만 아니고 다 달밭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밭골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달밭골로 옮겨가지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큰 동네 사람들 교회 다니라고 거기다 짓는다.”고 하니까 “에이, 새벽마다 종 울리고 하니까 달밭골로 교회 옮겨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100%는 안 나왔습니다. 고집사의 아버지는 고집이 세어서 안 나왔고, 남집사의 아버지는 남이라고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주옥 목사님의 아버지는 박대장이었습니다. 낫 만들고 호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 명만 안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세 명의 어른이 안 나오고, 아버지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재미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있는 곳에 뜻을 펴십니다.

산에 가도 꼭 보면 소나무 밭에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소나무 있는 중에 왕 소나무가 있습니다. 바다에 보면 고기 있는 중에 큰 고기인 고래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보면 많은 산짐승들이 있는 곳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월명동 마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월명동 마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날부터 역사를 해 온 것입니다. 그 전의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잘 모릅니다. 겨우 할아버지가 와있다는 것만 알지, 나는 우리 당세밖에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와 내가 같이 살은 이야기 밖에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이야기만 압니다. 지금까지 산 것은 내가 활동했을 때부터는 내가 잘 압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은

다 이사 갔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활동했을 때부터는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내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역사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마을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동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전민들이 거기에 그렇게 모여들어 살았답니다. 우리 윗집도 박주홍 목사라고 화전민이었고, 우리 집도 화전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랫집 고집사님 네도 화전민에 해당되었습니다. 고집사님 네도 목골 근방에서 이사 왔습니다. 화전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집은 화전보다도 금 캐러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 광산이 좋아서 금을 캐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공주에 살았는데, 아버지 형님이 거기 광산으로 취직해서 온 것입니다. 거기서 있다는 소리만 듣고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 일본이 침략했고, 우리 민족의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1905년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할아버지가 공주에 살았는데, 거기서 거쳐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9살 8살 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목살리에 한 1년 있다가 왔습니다. 정치 생활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목숨이 위험하니까 거기서 도망쳐서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살리에서 1년 동안 농사지으며 일해 주다고 넘어온 것입니다. 정치의 암행어사 하다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 정치 세계는 손을 놓았으니까 이제는 안 맞지요. 조용히 와서 은둔생활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와서 거기에 가서 일한다는 소리 들어서 그쪽으로 머리를 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다른 집도 아니고 가운데 집으로 왔습니다. 만일 가운데 집이 아니었으면 곤란했습니다. 가운데 그 집을 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내가 잘 압니다. 그것은 뭐 거울같이 압니다. 내가 왜 아는가 하니 형제들보다 내가 주인공이라 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어서 세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형제들은 다 외국으로 갔는데 우리 아버지만 못 갔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외국으로 나가고, 큰 아버지도 심천으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충청도 심천으로. 충북 근방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그 때 당시 일본으로 징용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일본의 징용 끌려가게 거의 99.9% 되었었습니다. 아버지도 일본으로 징용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징어 국을 삶아 주었습니다. 멀리 간다고. 그런데 그것 먹고 체해서 똥똥 부었습니다. 사람도 몰라볼 정도로 똥똥 부었습니다.

못 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일본으로 끌려가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때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뜻만 있게 만들면 아무도 손을 못 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큰 아버지도 나가 살고, 작은 아버지도 일본 가고, 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면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동안 월명동에 살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산 일을 하는데 부여 쪽, 장성 등 그쪽으로 갈 일 많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산 일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따라 나가야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외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인도 따라가고, 애들도 몇 명 없으니까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상하니까 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광산에서 연애를 했으면 달랐습니다. 아버지 말 들어보면 다른 사람은 연애를 많이 한답니다. 광산에서 밥을 해 주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남자가 밥 해 먹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결혼해서 살고 집에 안 가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한번 “자네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몇 푼만 주면 빨래해 주고 그러는데. 광산에서 사람 붙여 주는데.” 했고, 한번은 빨래해 주러 여자가 왔는데 밥도 안 시키고 가라고 내보냈답니다.

“내 부인 있으니 가라. 나 혼자 밥해 먹는다.” 하며 아버지가 광산에 있으면서 항상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만에 오시고, 5년 만에 오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동 안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을 많이 썼습니다. 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6.25때쯤에 금을 많이 썼습니다. 6.25때쯤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6.25때는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6.25났을 때 교촌리로 이사 갔다가 다시 또 왔습니다. 외갓집 교촌리 가서 8개월 살다 왔다고 합니다.

거기 이사 가서 있다가 규석이, 내 밑의 영자, 밑의 규석이를 거기서 낳았다고 합니다. 규석이 고향은 교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왔습니다. 이사 갔다가 대개는 산골짜기 위험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 안 왔답니다.

이사 갔을 때 다 불을 질렀답니다. 월명동 마을이 다 나갔습니다.

<초가집 그림>

그 때 다 불을 질렀었는데, 우리 집만 불을 안 질렀답니다.

옆집은 새 집으로 큼직하게 잘 지었는데도 불 질렀습니다. 고집사님 집도 불 지르고 다 불 질렀는데, 우리 집만 불 안 지르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났답니다. 왜 화가 났는가 하니 불을 안 질러서 좋

기는 좋은데, 불을 질렀어야 새로 짓는데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한 인민군에게 욕을 하면서 “잡놈들. 불 좀 짱 질러놓고 가지, 불 안 지르고 갔다.”고 얼마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놔두고 흔적을 없애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옛날 집은 예수님이 때려 부수라고해서 확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때려 부수라고 해서 내가 확 때려 부수었습니다.

월명동 마을, 선생님이 난 마을이기에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런 식으로 배경을 깔았습니다.

아버지도 꼭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금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하여튼 큰 가방으로 돈이 하나 가득히 가지고 왔습니다. 가방 길이가 1미터 됩니다. 옛날 가방은 큰데, 하나 가득 돈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때는 금을 캐서 팔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옆에 7채 정도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와 둘이 의논하러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 “돈으로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 전쟁터에.” 하셨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입니다.

또 아버지가 “이것, 아무래도 투자하는 것이 낫겠어. 금 켤 사람으로 땅을 사는데.” 하면 어머니가 또 “고향을 버리고 가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대전에 집 사놓고 나는 여기서 살 거예요. 집장사하고 끝냅시다.” 하니 “나는 그렇게는 하기 싫어.” 하며 둘이 계속 안 맞았습니다.

하나가 이러면 저리로 틀고, 하나가 저러면 이리로 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게 하신 것입니다. 못 나가게. 일단은 인간의 의향대로 하게 놔두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둡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틀어 버립니다. 이렇게 틀고, 저렇게 트십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마지막에 틀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이 어떻게 된 지를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면 히적부적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계속 살면서

“그때 집을 못 샀다. 그때 대전에 집을 샀으면 떼부자가 되었는데.”

아버지도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대전으로 갔으면 대전에서 내가 있으면서 성지땅 만들어야 하는데,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예정해 놓은 것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전 역으로 갔으면 내가 웃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10대 나이에 내가 대전에 나가서 살았으면 웃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을 수 있는 운이 트였으면 일단 돈은 벌니다. 그래서 돈 가지면 다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틀면 안 됩니다. 다 못했습니다.

이사도 못 가고, 거기에 집도 못 지었습니다. 집도 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 그런 많은 돈이 있는데, 이사를 안 가면 거기에 집이라도 지었어야 하는데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람이 인력으로 못 한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6.25 끝나고 또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신기하게 금도 많이 캐고 돈도 많이 있었는데 가난에 시달렸다고 하니까, 말도 잘 안 맞는 말 같지요?

하나님께서 보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돈은 돈이고. 또 때가 되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연단시키려니까!

나도, 선생님도 한번은 굉장히 실의에 빠졌었습니다. 남만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부자이고 잘 먹고 사는데 나는 배고파하면서 매일 돌아다니고, 전도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무엇하고 사나?”

“농사짓고 삽니다.”

“웃이 그것이 뭐요? 좋은 세상인데. 교회 다녔으면 잘 먹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 인동의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점쟁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딱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만 전도하고 돌아다니느라 차비도 없고 그랬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는데 차도 못 탔습니다. 월명동은 대전에서 70리이니까 멀어서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라고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점을 보느냐? 나는 교회 다니는데.” 했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지랄하네. 돈 받으려고 그러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큰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섭하지요. 이렇게 큰 인물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럼, 봐요. 당신, 무엇을 보느냐?”

세계를 누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대(大)자가 있는 것을 그 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른 쪽은 그 분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는 당시 머리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손을 일자로 펴 쥐면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나는 그 때 항상 사람들에게 머리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상(思想) 금입니다.” 그랬습니다. 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몸이 아파 절에 가서 한 3년 동안 있으니까 스님들이 이야기 전해 주고 해서 보니까 이것이 사상 금이고, 정신 금입니다. 막 금이 졌을 때는 막 살아도 잘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좌측 손을 보자고 했습니다. 좌측 손을 또 보니까, 좌측 손이 보이지요? 화면이 굉장히 떠네요. 좌측 손에는 대(大)자가 딱 있습니다. 대자가 보이지요? 딱 보이네요. 대자가 보입니다. 대(大)자가 아주 크게 쓰여 있습니다. 완벽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대(大)자를 보더니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옆드려서 땅에 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그것 봐준 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이상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봐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합동 주차장 앞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람 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큰 사람 보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잘되는 사람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보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깨를 보니까, 이 어깨 밑에 세상 사람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배고프고, 잘 데가 없고, 차비도 없을 때 자기가 무엇을 사 준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봐 준 사람이 한 톨 낸다고 해서 무엇을 사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 포장마차 주인에게 나를 “이 큰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깐 그 사람이 나에게 “나 좀 봐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고생 안 할 것인데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때렸더니 부인이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자면서 그 사람을 또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역사가 가게 해 놓았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에게 맞고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고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월남 갔다 왔을 때입니다.

“월남 갔다 왔다.”고 하니깐 “그것이 아니고,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천운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닌다. 당신은 하늘의 역천자, 아니면 순천자, 둘 중의 하나가 된다. 극과 극의 사람이 된다.” 했는데, 선생님이 하늘의 순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을 때 봐 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점을 본 사람 있습니까? 관상 본 사람 있습니까? 관상 보았을 때 좋게 나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관상이나 점을 보았는데 좋게 나온 사람? 꿈을 꾸었는데 좋게 나온 사람? 그것은 아마 섭리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밖에서 보았어도 섭리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중심하여 가야 됩니다.

나도 그 날 그것 봐 준 것이 하나님이 봐 준 것을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때 보았을 때 위로는 되었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일개 민족 보듯이 가소롭게 보고 산다.”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을 가소롭게 보고 삽니다. 이 복음으로 살 때 가소롭게 보고 삽니다.

결국 월명동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여러분들도 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뜻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100% 뜻이 있습니다. 왜 뜻이 있느냐? 그것 봐 줘서 맞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시 40:7)”

참조> 시편 40: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우리 ‘육신’이 아닙니까. 우리 육신에 전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잖아요.

딱 쳐다보면, “재 저렇다.”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상을 고치면 다른 사람이 되지만.

“재 저렇다.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섭리사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을 보세요. 관상을 보면 그 관상 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상을 고치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상쟁이를 데려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고하니 내가 그때 멍청해서 자포자기를 막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너만 좋은 일시키고 나는 뭐냐? 형편도 없이 차도 못 타고.” 그랬을 때 관상쟁이를 데려다가 딱 찢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낙심할 때 있으면, 요즘은 관상쟁이가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은 것이 나도 뭘 좋다고 했는데, 그게 맞네!’

“네 맞지요!”

그것을 못 보면 성경을 꼭 읽으면 성경에 착 “내가 뭐 될 것 같다.” 하면 그게 계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목표를 놓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시 받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날 만났을 때 우습게 역사 퍼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마을에 구주가 났다. 예수니라.” 그랬지요?

“너희를 위해서 월명동 마을에 너희의 구원자가 났다.”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월명동 마을에, 달밤골 마을에 났다.”

그래서 달밤골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여 왔는가? 월명동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냥은 안 모입니다.

<잔디밭 청중 사진>

계속 이렇게 모여 오잖아요. 달밤골 마을에 모여 옵니다. 뭘 보고 왔느냐? 나 때문에 왔습니다. 왜? 구원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 강의 한다고 모여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이 시대에 천국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을 한다고 따라 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월명동 마을이 외롭고 쓸쓸한 마을이었지만, 소쩍새 우는 마을이었지만, 이곳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주를 나게 했다.

예수님 때 베들레헴에 나듯이 똑같이 동시성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난 여러분들, 생명의 날! 금주의 말씀이지요? 이 생명의 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고 열심히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 모든 섭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평강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 충만하기를 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우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를 길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에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안녕~